

담양군 “치매가 있어도 걱정없는 치매안심마을”



담양군은 최근 고서면 고읍1구 덕촌 마을을 담양군 2호 치매안심마을로 지

고서면 고읍1구 덕촌마을, 치매안심마을 2호 지정 전문인력 직접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등 운영예정

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참석자 발열측정과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진행 됐으며,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위원과 지역주민 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이날 치매안심마을 소개와 치매 예방 책자를 통한 치매 예방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치매 안심마을은 지역 주민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치

매가족의 고립방지,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마을 안에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고읍1구 치매 안심마을에는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시작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전문 인력(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이 직접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육, 치매조기검진,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한다.
특히 치매환자의 치매악화 방지 및 보

호자의 부양부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경증치매환자를 보호해주는 워터도 병행한다.
김순복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해 주민들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치매 어르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4월 금성면 석현 마을을 제1호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한 바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장성군 “추석연휴 전 ‘효도권’ 드려요”

4분기 효도권 오는 24~25일 읍·면별 지급 예정...1인당 4만5000원

장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효도권 지급을 앞당긴다고 전했다. 군은 당초 10월 배포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이달 24~25일 읍·면별로 지급할 방침이다.
효도권은 군이 장성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목욕 및 이·미용 통합권이다. 1년에 4회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4만5000원 규모로 지원된다.
2015년 최초 시행 이래 올해로 6년차를 맞이했다. 최초 목욕업소로 제한되어 있던 사용처를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하

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변화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5000원권과 1000원권으로 나눠 발행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군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효도권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95~98%가 지원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도 고무적이다. 작년 자료에 따르면 장성군은 지난해 1만2400명에게 44만2538장의 효도권을 지급했으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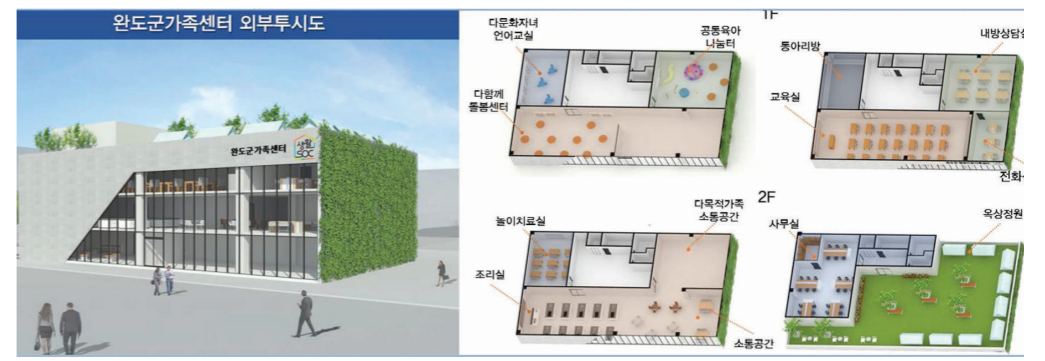
중 96%가 회수됐다. 업소별로는 이·미용 관련 71%, 목욕업소가 29%를 차지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4분기분 효도권을 미리 지급해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스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1,084가구와 경로당 151개소에 대해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폭 등 안전장치 설치를 전액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가스사고 예방과 서민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고흥군, 취약계층에 가스시설 개선 추진

군비 1억원 투입 영세가구 1084가구·경로당 151개소 대상

고흥군은 서민층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을 9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LPG가스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과 노인들의 여가 시간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완도군, 30억 투입하여 가족센터 건립한다

국무조정실 주관 2021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

완도군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그동안 도서로 형성된 지역적인 특수성과 교육·문화·의료 낙후성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이 도시로 이주하고, 다문화가정·맞벌이 가족·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다양화로 가족 서비스 강화와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이 절실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30억을 투입, 가족 서비스 센터 기능과 함께 돌봄 센터를 복합화한 시설인 ‘완도군 가족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완도군 가족센터는 지상4층 연면적

1,360㎡ 규모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가족센터 내에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가족 구성원의 생애 주기별 상담·교육·돌봄 지원을 위한 상담·소통 공간 등이 조성되고, 공동 육아 나눔터와 가족 놀이터도 들어선다.
완도군 관계자는 “생활SOC 복합화가 단순히 여러 시설을 한 곳에 모으는 물리적인 복합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생활 혁신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 · 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